

긴키(錦旗, 킨키)

최초로 '긴키'라고 불린 것은 다케우치 키슈(竹内淇州)의 기물로, 13세 명인이 된 세키네 긴지로(関根金次郎)에게 증정된 것입니다. 세키네 명인은 이 기물을 사용하여 향하는 곳마다 적수가 없었다고 하여 '긴키의 기물'이라고 불렸습니다. 현재 '긴키'라고 불리는 것은 고미즈노오(後水尾) 천황의 서체를 기물 장인 도요시마 류잔(豊島龍山)이 모사 제작한 것입니다.